日 사찰, 지역민 총의로 150년만에 재창건

수해 입고 150년 전 끝내 폐사
소실 위기 불상들, 주민이 지켜
5년전부터 사찰 복구 여론 커져
고야산 진언종에 정식으로 등록

박영빈 객원기자


150년만에 재창건된 소후쿠지와 부흥을 이끈 주민들.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350년 전 수해로 폐허가 되고, 150년 전에 결국 폐사된 사찰이 지역 주민들의 총의로 재창건됐다. 5월 1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의 현지언론들은 새롭게 부흥한 사찰 '소후쿠지(綜福寺)' 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미에현(三重縣) 나바리시(名張市)에 소재한 소후쿠지. 지역의 전승과 현지 사료들에 따르면 이 사찰은 진언종으로 350년 전 큰 수해를 입은 것으로 전한다. 현지 언론들은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소후쿠지(総福寺), 또는 소후쿠지(宗福寺)라는 이름 사찰이 있었고, 350년 전 상류의 대형 저수지가 폭우에 무너지면서 마을과 함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한다"고 보도했다. 지역주민들 역시 "수해 후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임시로 불상과 불구만을 수습해 모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150년 전 끝내 폐사됐다"고 증언했다.

사찰이 폐사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은 절의 본존불을 비롯해 6구의 불상과 불구들을 마을회관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봉안해 지켜왔다. 심지어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동네 절' 이라고 부르며 소중히 여겨왔고, 정기적으로 인근 사찰의 스님을 모셔와 법요도 운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5년 정도 전부터 주민들 가운데 '사찰을 부흥하자' 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회의와 모임 끝에 지역주민 49가구의 총의가 모여 소후쿠지 부흥운동이 본격화됐다.

사찰 공간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좀 더 여법하게 리모델링하여 마련하고, 인접 사찰의 주지스님에게 사찰의 주지를 겸직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시에 지역에 널리 정식사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종교법인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

절의 이름은 옛 기록에 나오는 '総' 과 '宗' 에서 한 자씩 따와 '綜' 으로 통일했다.

지난해 여름 소후쿠지는 인근도시에서 30년 이상 휴면상태였던 사찰의 법인격을 인수하는 형태로 종교법인 인가를 취득하고, 주지를 겸직하기로 한 스님의 노력으로 고야산 진언종의 정식등록도 마쳤다. 봉안될 불상들도 마을회관에 모셔오던 불상을 수리하고, 법인격을 인수한 사찰에서 불상 1구를 이운해와 봉안하면서 사찰의 모습을 완전히 갖췄다.

지난 23일 소후쿠지 부흥불사 회향식에서 부흥불사 실행위원장을 맡아온 우치야마 카츠노리는 "소후쿠지의 부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고, 마을주민 모두의 총의"라며 불사를 이룬 의의를 설명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사찰을 일으킨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지켜가고 싶다"며 앞으로의 의지를 말했다.

아일랜드 공화국, 최초 베트남 사원 열어

민탐 파고다, 500명 동시수용 가능


잭 챔버스 국무장관과 틱 프억 후에 스님, 국제 베트남 불교계 인사들이 아일랜드 최초 베트남 불교 사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출처=디 아이리쉬 타임즈

더블린에 아일랜드 최초의 베트남 불교 사원이 문을 열어 화제다. 지난 5월 7일 아일랜드 일간지 '디 아이리쉬 타임즈' 는 아일랜드 최초 베트남 불교 사원 개원 소식을 전했다.

아일랜드 최초의 불교사원 '민탐 파고다' 는 더블린 노스사이드 산업단지 내 산업 건물을 개조해 건립했다. 산업시설에서 종교 시설로 건축물 용도 변경을 진행했으며 40만 유로(한화 약 58억원)가 소요됐다. 사원 건립 비용은 아일랜드와 해외 베트남 공동체 사람들의 불사와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원은 매주 일요일,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버이날과 같은 문화 축제를 위한 법회가 열릴 예정이다.

개원식은 버밍엄 베트남 불교 사원의 틱 프억 후에 주지스님이 집전했으며 국제 베트남 불교계 인사들과 아일랜드 국무장관 잭 챔버스가 참석했다. 티흐 프억 후 스님은 "개원식에 집전을 할 수있어 큰 영광"이라며 사원에 대한 정부의 자비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에 있는 베트남 불교계에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순간을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각고의 노력을 행한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축복을 전하고 싶다"며 "인연과(因然果) 법칙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선을 행한 이들에게 선이 돌아올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챔버스 국무장관은 "쿨룩 한복판에 이 아름다운 사원을 건립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며 "불사를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아일랜드 국민과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1979년 '보트 피플(베트남 전쟁 난민)' 이 아일랜드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베트남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로 이주한 베트남 인구 1만 명 중 4천여명이 베트남 불교도로 추정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러시아 틔바 공화국, 최대 규모 불교 사원 개원

12층 3만평 규모…6.3m 본존불
달라이라마 '툽텐 셰둡링' 명명


툽텐 셰둡링 사원 전경. 사진출처=사원 공식 페이스북

러시아 틔바 공화국에 최대 규모 불교 사원이 개원해 화제다. 지난 5월 3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러시아 틔바 공화국 '툽텐 셰둡링' 개원식 소식을 전했다.

러시아 틔바 공화국 수도 키질에 위치한 '툽텐 셰둡링' 사원은 56m에 달하는 12층, 3만평 규모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이며 법당에는 6.3m 진신사리 본존불과 5개의 신불상이 모셔졌다. 이 유물들은 1959년 티벳에서 가져온 것으로 달라이라마가 가사, 경전과 함께 기증했다. 사원은 티베트 문자로 쓰인 경전을 포함한 3천여 개의 불교 유물을 전시 할 예정이다. 사원은 승려들을 위한 기숙사, 공부방, 그리고 의료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4월 28일 개원식에는 법요식과 틔반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틔반족의 제9대 캄비 라마인 겔렉 낫쉭 도르주가 주도했으며, 새로 선출된 칼미크족의 샤진 라마, 게세 텐진 최닥, 칼미크 라마 안자 겔룽 등 몽골과 러시아 각지의 불교 대표들이 참석했다. 틔바 공화국의 숄반 카라울 대통령 부랴티아 화국의 알렉세이 치데노프 대통령, 네팔 공화국의 러시아 대사 밀란 라즈 툴라다르가 참석했다.

틔바와 칼미키야의 불교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불교도들을 위한 새로운 수도원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캄비 라마 '겔렉 낫쉭 도르주' 는 "툽텐 셰둡링의 개원은 러시아 불교 발전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장소의 탄생"이라고 말했다. 샤진 라마와 게셰 텐진 최닥은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즐기고 있다. 이 사원이 종교적 명소가 되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교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1992년 달라이라마가 러시아에 방문했을 때 틔바 공화국의 주요 공항과 수도 근처에 달마 기념비 건립 위치를 결정하고 축복했다. 2012년 틔바 공화국 숄반 카라울 대통령이 달라이라마와의 대담 후 세르게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념비 건립 위치에 사원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4년 불자들의 불사와 비영리 재단이 모금한 성금으로 사원 건립의 첫 삽을 떴으나 코로나19의 유행과 관련 조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28일 개원했다.

카라울 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지도에 대한 틔바 사람들의 헌신과 감사의 표현으로 달라이라마 사원으로 명명했으나 2020년 달라이라마가 '툽텐 셰둡링' 으로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현재 툽텐 셰둡링에는 인도의 티베트 사원인 드레풍 사원에서 온 6명의 승려와 틔바 승려 6명이 상주하며 하루 세 번 예불을 집전한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봉축메시지 발표

2023년 베삭데이 맞춰 전해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실천'
"연기적 연결됨 인식해야"


최근 인도에서 열린 불교정상회의에 참석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매년 음력 4월 보름을 '베삭데이(Vesak day)' 로 1999년 제54차 UN총회에서 공식 채택한 이날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처님오신날로 기념되고 있다. 특히 남방불교권과 여러 경전들에 따르면 이날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열반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도 봉축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5월 5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 '아웃 룩 인디아' 등의 외신들은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발표를 인용해 메시지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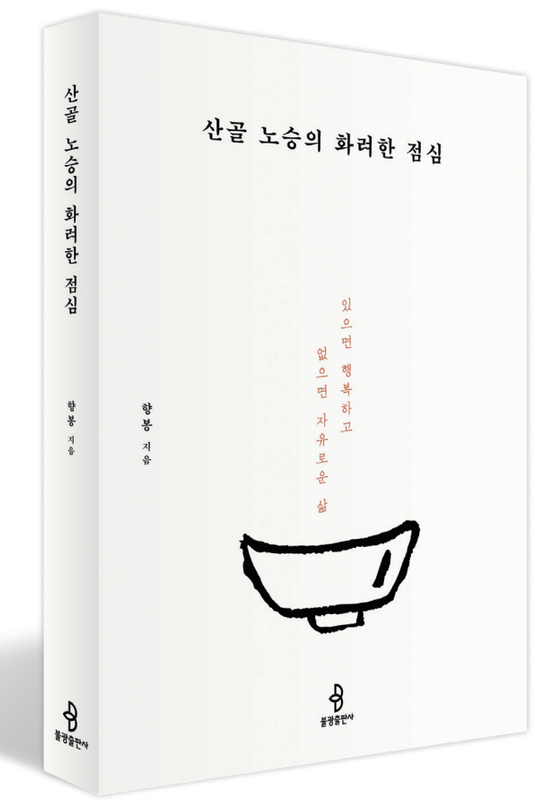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는 공식 사무국을 통해 발표한 봉축메시지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대열반을 기념하는 이 상서로운 기념일에 전 세계의 동료 불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를 결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이타적 정신인 보살행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실천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연기적으로 연결됐음을 인식하고 오늘날 전 세계 80억 인구 모두가 행복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특별한 날에 나는 영적인 형제자매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바란다. 따뜻한 마음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그래, 이 맛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스님의 글맛!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우리 앞에 다시금 '산골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가슴이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정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향봉 지음 | 248쪽 | 값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 누리며 살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홈페이지 www.bulkwang.co.kr